**2022년 수입 승용차 283,435대 신규등록**

[2023. 01. 04]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는 2022년 12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11월 28,222대보다 5.0% 증가, 2021년 12월 23,904대보다 24.0% 증가한 29,640대로 집계됐으며 2022년 12월까지 연간 누적대수 283,435대는 2021년 연간 276,146대보다 2.6%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

2022년 연간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-벤츠(Mercedes-Benz) 80,976대, 비엠더블유(BMW) 78,545대, 아우디(Audi) 21,402대, 폭스바겐(Volkswagen) 15,791대, 볼보(Volvo) 14,431대, 미니(MINI) 11,213대, 쉐보레(Chevrolet) 9,004대, 포르쉐(Porsche) 8,963대, 렉서스(Lexus) 7,592대, 지프(Jeep) 7,166대, 토요타(Toyota) 6,259대, 포드(Ford) 5,300대, 혼다(Honda) 3,140대, 랜드로버(Land Rover) 3,113대, 폴스타(Polestar) 2,794대, 링컨(Lincoln) 2,548대, 푸조(Peugeot) 1,965대, 캐딜락(Cadillac) 977대, 벤틀리(Bentley) 775대, 마세라티(Maserati) 554대, 람보르기니(Lamborghini) 403대, 롤스로이스(Rolls-Royce) 234대, 재규어(Jaguar) 163대, 디에스(DS) 88대, 시트로엥(Citroen) 39대였다.

연간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,000cc 미만 160,299대(56.6%), 2,000cc~3,000cc 미만 77,224대(27.2%), 3,000cc~4,000cc 미만 18,452대(6.5%), 4,000cc 이상 4,258대(1.5%), 기타(전기차) 23,202대(8.2%)로 나타났다. 연간 국가별로는 유럽 241,449대(85.2%), 미국 24,995대(8.8%), 일본 16,991대(6.0%) 순이었고 연료별로는 가솔린 139,821대(49.3%), 하이브리드 74,207대(26.2%), 디젤 33,091대(11.7%), 전기 23,202대(8.2%),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3,114대(4.6%) 순이었다.

2022년 구매유형별로는 283,435대 중 개인구매가 172,712대로 60.9%, 법인구매가 110,723대로 39.1%였다.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54,613대(31.6%), 서울 36,232대(21.0%), 부산 10,390대(6.0%)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37,307대(33.7%), 부산 22,936대(20.7%), 경남 15,814대(14.3%) 순으로 집계됐다.

2022년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-벤츠 E 250(12,172대), 메르세데스-벤츠 E 350 4MATIC(10,601대), 비엠더블유 520(10,445대) 순이었다.

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 정윤영 부회장은 “2022년 수입 승용차 시장은 반도체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의 안정적인 물량수급, 신규 브랜드 및 다양한 신차 등으로 2021년 대비 증가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
#####

자료문의:

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 박은석 이사(02-518-8046, espark@kaida.co.kr)